

1980년대 서구여성의 헤어스타일 분석

피부관리과

외래강사 이 주 연

I. 서 론

의복 양식이나 방식은 사회적 유산의 일부이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의 일부는 과거로부터 유래된 것이고 일부는 우리 자신들의 생애중에 생긴 새로운 발명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서양문명 전체에서 한 시대의 특수한 스타일인 어떤 복식형태의 변천은 그 문명 내에서의 각기 다른 인종적, 지리적, 사회적 그리고 연령적 집단을 만들어낸 것과 변천과정이 동일하다. 의복은 특수한 기술적, 경제적, 도덕적 그리고 미적 배경의 전후관계에서 발생하는 기본적 형태의 좋은 본보기이다. 복식의 차이점들은 그것을 설명해주는 문화만큼이나 그 수가 많지만 어떤 요소들은 복식예술이 발달되어온 긴 세월 동안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모든 의복과 장식에 있어서 일반적인 것처럼 보인다. 문화적 용어로서의 양식이라는 말은 일관되고 규율있는 혹은 반복적인 행동의 어떠한 면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를 함으로써 일정하게 사회적 생태적 환경조건과 관련되어 진화하는 의복반응의 일반적 양식들을 알수 있다. 그렇지만 사회마다 그 문화를 확립할 때 그 사회는 이 모든 것중에서 제한적으로 선택하고 다른 것들을 배척하거나 무시해버린다. 양식의 이 독특한 선택으로 인하여 모든 문화는 어느 면에선가 차이가 나게 된다.

변화는 양식에 있어 없어서는 안되는 활력소이나 양식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준은 특정한 시대, 혹은 특정한 지역 문화내에서 각기 다른 복식 양식들이 지니고 있는 여러가지 안정적 요인들이며 이 안정적 측면 없이는 양식이라 특정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 양식을 다른 양식과 분리해 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정적 측면을 바탕으로 양식에 대한 정의가 가능하며 이 안정적 요인이 또한 복식 양식 변화를 가능케 하는 가설이되고 또한 안정적 요인들은 변화

를 연구함으로써 파악되기도 한다.

이러한 패션의 특성으로 볼 때 현재의 복식 현상을 시간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장기간에 걸친 의복에서의 반복되는 규칙성이나 변동에 주목함으로써 사회적 변화가 의복의 유형에 주는 가능한 영향을 보다 잘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다. 현재의 스타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수하고도 자연발생적인 창조물이 아니다. 그것들은 과거로부터 오며, 미래에 어떠한 것인가 하는것은 오늘날의 조건과 영향들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

패션의 순환 및 주기성은 장기간에 걸쳐 복식의 변화를 관찰하였을 때 식별이 가능 하며 과거의 모든 스타일과 착장의 방식은 패션의 대상이 되므로 과거의 경향을 연구하여 복식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복식사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경향이나 변화율을 나타낸 데이터를 분석하고 변화의 속도와 범위를 측정된 선행연구를 근거로하여 관찰과 경험의 조직에 의존한 과학적 접근을 통하여 복식행동에 대한 관찰을 하면 개인과 집단의 행동방식에서 공통적, 규칙적, 반복적인 요소들을 알 수 있게 된다.

넓은 의미에서의 복식은 모든 신체 장식 또는 인체에 가해지는 외모수정이라고 정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의는 문신, 흉터, 화장품 사용, 머리 스타일, 수염 등과 같은 것을 포함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복식의 일부인 헤어 스타일을 대상으로 복식사의 연구를 하고자 하며 특히 1980년대의 헤어 스타일의 연구를 통하여 패션 경향을 통합하고자 한다. 그러나 패션은 개인적인 감정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각 개인은 편파적인 관찰이나 왜곡된 해석으로 이끌릴 수 있는 일련의 선입관을 가지고 있고 또한 패션관찰을 할 때 우리가 보는 것은 흔히 우리가 보리라고 기대하는 것이나 찾고 있기 때문에 패션에 대한 객관성을 발달시키는 것은 다른 연구분야에서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편파심들의 통제를 위해 체계적인 실험 계획을 통하여 얻은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문화의 양식

문화는 사회구성원들이 착용하는 의복의 형태에 제 1차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문화는 생물학적으로 유전되는 것이 아니다. 문화는 유전, 변형, 공유, 학습, 전달, 그리고 축적되는 것이다.¹⁾ 의복양식이나 방식은 사회적 유산의 일부이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의 일부는 과거로부터 유래된 것이고, 일부는 우리 자신들의 생애중에

1) 한상복외, 문화 인류학 개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pp.69-75

생긴 새로운 발명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서양 문명 전체에서 한 시대의 특수한 스타일인 어떠한 복식형태의 변천은 그 문명 내에서의 각기 다른 인종적, 지리적, 사회적 그리고 연령적 집단을 만들어낸 것과 변천 과정이 동일하다. 의복은 특수한 기술적, 경제적, 도덕적 그리고 미적 배경의 전후관계에서 발생하는 기본적 형태의 좋은 본보기이다. 복식의 차이점들은 그것을 설명해주는 문화만큼이나 그 수가 많지만, 어떤 요소들은 복식이 발달되어온 긴 세월동안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모든 의복과 장식에 일반적인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문화간의 비교를 통하여 복식의 보편성과 다양한 양식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문화적 용어로서의 “양식”이라는 말은 일관되고 규율있는 혹은 반복적인 행동의 어떠한 면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를 함으로써 일정한 사회적, 생태적, 환경조건과 관련되어 진화하는 의복반응의 일반적 양식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일반적 양식들을 보편성이라 한다²⁾. 그러나 사회마다 그 문화를 확립할 때 그 사회는 이 모든 것 중에서 제한적으로 선택하고, 다른 것들을 배척하거나 무시해 버린다. 양식의 이 독특한 선택으로 인하여 모든 문화는 다른 모든 문화와 어느 면에선가 차이가 나게 되며 이러한 양식들을 다양성이라고 한다.

1) 문화의 다양성

문화라는 것은 인간의 세대나 환경 혹은 인간의 다양한 행위가 가져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해 관계를 내포하는 커다란 호임을 상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의 문화로서의 주체성은 이러한 많은 이해 관계를 내포하는 호에서 어느 정도의 단편들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모든 인간 사회는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그 문화 제도 중에서 이러한 선택을 한다.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 모든 인간 사회는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고 전혀 엉뚱한 것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제도와 행동 동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은 문화의 단순 복잡의 정도에 관계없이 무한하며 이러한 다양성을 폭 넓게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지혜이다. 인간이 어떤 문화에 완전히 참가할 수 있으려면 그 문화 형식에 따라서 양육되고 생활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자신이 속한 문화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다른 문화에도 인정해줄 수는 없다.

문화의 다양성은 문화적 특성의 복잡한 상호 교차에서 더 많이 비롯된다. 즉, 하나의 문화적 특성이 다른 경험 분야에서 나온 다른 특성과 합쳐지는 방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어떤 문화적 행위는 종교적 신념과 결부되어서 그들 종교의 중요한 한국면으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똑같은 행위가 전적으로 경제적 이전의 문제가 되어서 통화 제도의 한 양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끝이 없으며 그 적용되는 상황이 이상하게 보일 때도 있다. 이러한 행위의 본질은 그것과 결합되는 요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도 있으며 이러한 문화

2) 김열규역, 루스 베네딕트, 문화의 패턴, 서울, 까치, 1993, pp.35-60

적 과정을 분명하게 알아두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이러한 인간 행위가 지역적으로 결합됨으로써 생기는 여러 결과들을 하나의 사회학적 법칙에 의해서 간단히 일반화하려는 유혹에 빠지거나 이러한 결합을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가정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2) 문화의 보편성

문화적 행동은 그것이 지방적이고 인위적이며 크나큰 다양성을 지닌 것이라고 분명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문화적 행동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또한 통일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문화란 개인과 마찬가지로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해도 앞뒤와 옆이 잘 짜여진 생각과 행동의 패턴이다. 각 문화에는 독자적인 목적이 생성되는 데 다른 형태의 사회에서 이것이 반드시 공유되는 것은 아니다. 이 목적에 따라서 사람들은 누구나 경험들의 매듭을 차츰 엮어 가게 된다. 이와 같은 통일성(integration)의 충동이 절실하면 할수록 행동의 이질적 요소들은 더욱 더 잘 어울린 모습을 갖추게 된다. 가장 어울리지 않는 행동도 잘 통일된 문화가 이를 받아들이면 그 문화의 특수한 목표의 한 특성이 된다. 이러한 현상은 도저히 있을 법하지 않은 변모를 통해서도 자주 일어난다. 이러한 행동이 취하는 형식은 우선 그 사회의 정서적이고 지적인 원천을 이해함으로써 이해가 가능하다. 3)

이렇듯, 전체란 그것을 이루는 모든 부분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다. 전체란 부분을 독특하게 조정하고 상호관계를 만들어 새로운 실체를 가져온 결과인 것이다. 행동의 문화 양식은 그 행동의 요소를 다르게 결합할 경우 전혀 다르게 변해 버린다. 이와 마찬가지로 문화란 그 특성의 단순한 집적 이상이므로 문화적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하나의 일반적인 문화의 연구에서 복수의 개별 문화에 대한 연구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전체를 이루는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분석보다는 전체 통합에 대한 연구가 더 중요하다는 점은 현대 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Ⅲ. 연구시기의 사회적 배경과 복식의 배경

1. 사회적 배경

흔들리는 60년대와 과도한 핑크락의 70년대 이후에 무언가 전환이 필요했던 80년대에는 진지한 예술과 발전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풍조가 발생하였다. 더구나 1980년대의 막이 열리면서 에너지 파동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3) 김열규 역, 상계서, 1993, pp.61-75

절약풍조가 일상생활 및 개인생활에까지 침투되었다. 1980년에 영국에서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너비의 결혼으로 전 세계는 로맨스 일색이 되었으나, 사실상 80년대의 정신은 Yuppies 라는 잘 차려 입은 젊은 상류층들에 의한 hardworker와 개인적 책임주의로 대변된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퍼진 사회적 경향이었다.

그러는 동안 미국에서는 Ronald Reagan이 대통령에 선출되어 부유함과 옷을 잘 차려 입는것이 유행되었다. 백악관을 중심으로 오찬이나 이브닝 파티들이 성행하였고 Nancy Reagan의 세련된 디자이너 의상들은 새로운 풍조를 탄생시켰다. 정치계나 사업계에서는 이제 패셔너블한 옷과 악세사리로 성공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가치체계는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소련에까지 확산되었다.

80년대 초에 여전히 핑크 스타일이 유행하였으나 차차 희미해져 갔다. Prince나 Boy George같은 팝 스타들은 위협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특이하고 현란한 의상과 메이크업으로 80년대의 남성상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즉, 70년대의 여성들이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더욱 강한 이미지를 갖기 위해 노력한 것에 반해 80년대의 남성들은 동정심 있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갖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이다.

2. 예술적 사조

1981년부터 급격하게 건축이나 디자인, 미술 분야에서 대두된 포스트 모더니즘(Post Modernism)은 80년대 주목되는 디자인 개념으로서 현대 인테리어, 패션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즉, 고정된 종래의 디자인 개념을 깨뜨리고 현대의 개성화, 다양화, 고급화의 추세를 따라 특별히 유행한 스타일이 없이 여러가지 스타일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나타나는 포스트 모더니즘 복식은 현대적인 감각과 클래식한 감각의 융합으로써 클래식시즘(Classicism)과 모더니즘(Modernism), 아방가르드(Avantgarde)와 노스탈지(Nostalgia)의 융합으로 보는 경향도 있으며, 동양과 서양, 클래식과 전위, 호화 찬란한 드레스 대신 누구나 쉽게 입을 수 있는 거리 패션이 등장했고 고객은 상류사회에서 젊은 대중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몰 역사성에 반발한 역사적인 요소의 도입과 절충, 역사적인 요소의 장식성, 낭만성, 페미니즘(Feminism), 클래식시즘, 아방가르드등 모든 것이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착적이고 민속적인 요소의 도입 및 절충이 나타났다. 동양이나 아프리카 등의 민속복의 응용과 재해석을 통하여 신비적이며 고유한 이미지를 존중하는 원시성이나 인간 본능에의 향유인 것이다. 또한 상징적이며 전위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거나 배설하고자하는 인간의 욕구를 전위적으로 표현하였다. 자연, 핑크 룩(Punk Look), 에콜로지 룩(Ecology Look), 팝 룩(Pop Look) 등의 다양한 형태가 도입되어 상이하고 복잡하게 나타남으로써 다원주의, 복합주의, 절충주의 등으로 표현되었다.

3. 복식의 배경

흔들리던 60년대, 과도한 핑크룩의 70년대후에 무언가 반동이 필요했던 80년대에 진지한 예술과 성숙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등장했다. 더구나 1980년대의 막이 열리면서 에너지 파동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절약풍조가 일상생활 및 개인 생활에까지 침투되었다. 또한 여성의 생활 영역 확대로 인해 사회적인 경우 뿐 아니라 개인의 독자적인 생활형태가 다양해져 패션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패션제품의 질적인 추구하고 용도의 다양화, 개성화를 요구하게 되어 패션제품의 경향을 구체화시켰다. 즉 소비자들은 입어서 편하고 착용자의 개성을 살린 그러면서도 현대감각에 맞는 세련된 멋을 요구하고 따라서 대중 기성복 업체들도 디자인과 옷감, 봉제 등의 일반적 수준을 높여 더욱 향상된 패션 제품을 생산했다.

Issey Miyake, Yohji Yamamoto 는 창의력이 풍부하고 국제적 재능을 발휘하였고 튀니지인 Azzedine Alaia 는 수영복 같이 줄어드는 tube dress 를 만들었고 이때부터 계속해서 탄력성이 큰 옷을 만들었으며 Lycra의 stretch 가 나오게 되었다. Karl Lagerfeld 는 다리는 80년대의 전체 패션의 포인트라고 하였고 바로 경쾌하고 검은 leggings 가 바지나 스커트 대신 착용되었다. Alaia, Jean-Paul Gaultier, Madonna 의 디자이너, 파리의 새로운 enfant terrible 등은 최대한 드러내는 패션을 주도하였고 그것은 중요한 기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잘라버려 운동복에 가까운 형태를 하는 것이었다. 또한 Calvin Klein, Giorgio Armani, Ralph Lauren은 80년대 최고의 성공적인 디자이너였고 그들은 새로운 소비형태를 탄생시켰다. 즉, Total Fashion 의 일환으로 속옷부터 코트, 악세사리까지 한 디자이너의 이름으로 생산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한 매장에서 모든 종류의 의복을 구입할수 있게 만들었다. 많은 백화점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판매 방법에 맞추어 매장을 재정비하여 소비자들은 여러 매장을 돌아 다니지 않고 한 디자이너숍에서 코디네이트된 모든 의복 제품을 구입할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젊은 층의 브랜드인 Benetton과 스포츠웨어 레저웨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운동 선수들 사이에서는 Nike 나 Reebok같은 레벨이 유행하게 되었고 올림픽에서조차 최고의 운동선수들은 운동복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다.

또한 1980년대의 패션은 미래형 공간세계의 영향을 받은 듯한 분위기와 과거에 의 향수를 자아내는 것의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현대적 감각의 비대칭적이고 기하학적인 구조가 드라마틱하고 풍요롭게 몸매를 드러내주는 의상들과 함께 유행했으며 이들의 절충정도 나타났다. 즉 바로크나 19세기 말의 화려하고 과장되며 여성적인 분위기를 현대감각에 맞게 변형시킨 과장된 스타일과 여성다우면서도 활동적이며 생동감 있는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컬리지 패션 그리고 메카닉하고 예민한 감각을 느끼게 하는 S.F style 등이 나타났다. 또한 1970년대로부터 각광 받던 니트가 여성적이고 실용적이란 이유에서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여 포멀한 정장에서 캐주얼한 의복에까지 모든 범위에 적용되었다.

80년대의 전반적인 패션경향은 핑크 스타일을 꺾었으나 초기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프린스나 보이 죠지 같은 팝 스타들은 꼼찍하지는 않았지만 현란한 의상과 특이한 분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1980년대는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너의 결혼식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 다이애너의 fairy tale dress는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유행되었다. 또한 미국 영부인 Nancy Reagan여사의 옷은 주로 디자이너 제품으로 이전의 Rosalin Carter 여사의 수수한 옷과는 대조가 되는것으로 비지니스계나 정치계에서의 성공은 패셔너블한 옷에서 더욱 빛나게 되었다.

4. 헤어 스타일의 배경

1988년 고도로 발달된 트리트먼트 제품이 나왔다. 80년대의 스타일링 제품의 사용과 잦은 퍼머와 염색, 탈색등으로 인해 모발은 더욱 손상되기 쉬어졌다. Hydrating Complex, Protein 이 첨가된 Intensive Moisturizer 등의 Nourishment Therapy 에 의해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976년 동계올림픽에서 피겨 스케이팅 선수 Dorothy Hamill이 한 Wedge 스타일은 그녀의 건강하고 빛나는 머리결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보여주었고 그 이후 전세계적으로 유행되었다. Wedge 는 윗쪽은 무거운 보브 형태이고 아래는 ridge 를 만들면서 짧게 깎여진 형태로 매우 공기 역학적인 스타일이며 선이 건축적이면서도 부드러워 보여 80년대의 전반적인 패션경향의 의복과 잘 어울린다. 여자 운동선수들은 이 머리로 인해 ponytail 이나 chignon등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난폭한 Mohican 헤어 스타일이 점차 시들어가면서 또 다른 단순한 장식 형태의 헤어 스타일이 등장하였다.

IV.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의 선정

헤어 스타일의 다양성과 안정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Vogue지를 선정하여 1980년대의 헤어 스타일을 조사하였다. Vogue 지는 1900년대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Mott (1957)에 의하면 Vogue 지는 다른 잡지에 비해 중용적이며 신뢰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때 Vogue 지를 통한 헤어 스타일 연구는 전체적인 헤어 스타일을 대표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1980년에서 1990년까지의 Vogue 지를 일차적 자료로 선정하여 1980년대의 헤어 스타일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Vogue 지 이외에 In Vogue 75 Years Of Style, Vidal Sassoon fifty years ahead,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Fashion of a decade, Fashion in Hair 등 다수의 패션 관련 책자를 이차적 자료로 참고하였다.

2. 표집 방법

1980년부터 1990년까지 매해 매달 특정한 계절에 치우침이 없이 자료를 표집하였으며 표집 사진의 상황 조건은 젊은 여성의 일상복 차림으로 한정하였다.

여기서 일상복 차림이란 이브닝 드레스나 특별 상황에 착용하는 복장을 제외한 정장, 캐주얼, 스포츠 웨어, 레저 웨어등을 포함한다. 사진은 또한 정면에 가깝고, 직립에 가까운 사진을 택하였으며 모자를 착용했거나 두식 장식을 한 것, 머리를 올리거나 묶은 것, 사진 촬영의 특별한 기법에 의해 원래 헤어 스타일이 변조되거나 과장된 것, 디자이너의 특성에 따라 개인적 특성이 많이 개입된 헤어스타일 등은 배제하였다. 헤어 스타일은 계절에 따라 특별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특정한 계절이나 달에 국한됨이 없이 매년 매달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위에서 언급한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사진을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1980년대는 헤어 스타일이 다양하여 짧은 스타일 (정면에서 보았을 때 머리 길이가 턱선보다 짧은 경우), 중간 스타일 (턱선에서 어깨선 중간 길이), 긴 스타일 (어깨선 아래 길이)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10년마다 100개 정도씩을 표집하여 총 327개의 자료를 선정하였다.

3. 측정 방법

모든 측정은 1/600m 자로 측정하였으며 측정자료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얼굴 총길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얼굴 총길이는 이마 끝부터 턱끝까지의 길이로 하였으며 얼굴이 머리에 의해 가려지는 등의 이유로 얼굴 총길이를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얼굴의 길이를 이마에서 눈썹선까지, 눈썹선에서 코끝까지, 코끝에서 턱 끝까지 각각 1: 1: 1 이라는 가정 하에 눈에 보이는 어느 한 부분을 재어서 그 길이를 3배로 한 길이를 얼굴 총길이로 추정하였다. 우선 얼굴 총길이를 측정한 다음 각 측정요인을 얼굴 총길이에 대한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헤어 스타일의 측정 요인은 다음과 같다.

- 1) 얼굴 총길이(Face Length): 이마 끝 중앙에서 턱 끝까지 길이를 수직선상에서 잰다.
- 2) 머리 길이(Hair Length): 머리카락의 가장 높은 부위부터 머리카락의 가장 아래부분까지의 길이를 수직선상에서 잰다.
- 3) 머리폭(Hair Width): 머리폭중 가장 넓은 부위의 길이를 수평선상에서 잰다.
- 4) 머리 높이(Hair Height): 이마 끝부터 머리의 가장 높은 부위까지의 길이를 재고 이마가 가려졌을 경우에는 얼굴 길이의 1/3 에 해당되는 지점을 이마 끝점으로 하여 길이를 잰다.

V. 본 론

1. 1980년대 헤어 스타일의 다양성

1) 머리 길이(Hair Length)

표 1. Hair Length

(단위: %)

| | 1980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mean | SD |
|-------|------|------|------|------|------|------|------|------|------|------|------|------|----|
| short | 75 | 64 | | 83 | 60 | 65 | 54 | 54 | 42 | 60 | 59 | 62 | 41 |
| med | 104 | 108 | | 94 | | 104 | 99 | 94 | 100 | 99 | 92 | 99 | 16 |
| long | 147 | 149 | | 136 | 140 | 160 | 163 | 148 | 166 | 179 | 195 | 158 | 59 |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대의 머리 길이를 세가지 길이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짧은 머리는 1980년에 75% 와 1983년에 83% 였던 것을 제외하면 모두 70% 미만이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Fig. 1 Fig. 2 Fig. 3 Fig. 4와 같이 80년대의 짧은 머리 길이의 평균은 62% 로 귀끝 길이 정도였고 편차가 41%였는 것을 보아 짧은 머리 길이는 다양한 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거기에 비해 중간 머리 길이는 평균 99% 였고 편차는 16%로 80년대의 중간 머리의 길이는 큰 차이 없이 비슷하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것은 턱 길이였으며 Fig. 5 Fig. 6 Fig. 7과 같다. 긴 머리의 길이는 1983년에 136%로 가장 짧은 길이였고 1990년에 195%로 가장 길었으며 80년대 긴 머리 길이의 평균은 158%로 어깨 밑 길이였으며 편차는 59%로 긴 머리 역시 다양한 길이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Fig. 8 Fig. 9 Fig. 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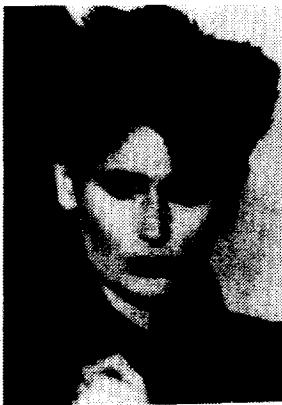


Fig. 1



Fig.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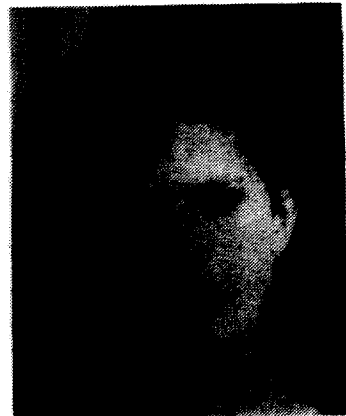


Fig. 3



Fig.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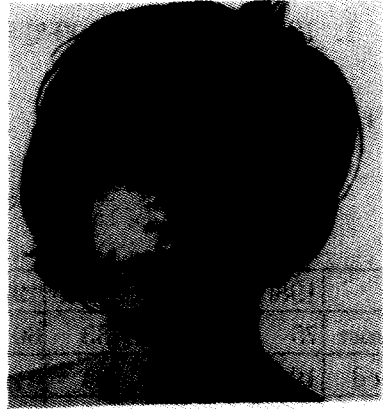


Fig. 5



Fig. 6



Fig. 7



Fig. 8



Fig. 9



Fig. 10

2) 머리 폭(Hair Width)

표 2. Hair Width

(단위 : %)

| | 1980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mean | SD |
|-------|------|------|------|------|------|------|------|------|------|------|------|------|----|
| short | 114 | 111 | | 106 | | 122 | 130 | 111 | 115 | 116 | 111 | 115 | 14 |
| med | 167 | 146 | | 153 | | 144 | 162 | 137 | 148 | 149 | 127 | 148 | 40 |
| long | 170 | 165 | | 137 | 184 | 158 | 150 | 169 | 170 | 183 | 153 | 163 | 43 |

표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머리 폭은 짧은 머리의 경우 가장 적어 평균 115%였고 편차는 14%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머리 길이의 경우 1980년에 167%로 머리 폭이 가장 컸으며 1990년에 머리 폭이 127%로 가장 적었으며 평균 148%였고 편차는 40%로 중간 머리 길이의 경우 머리 폭은 다양하였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긴 머리의 경우 1983년에 137%로 머리 폭이 가장 적었고 1989년에 183%로 머리 폭이 가장 컸으며 평균은 163%였고 편차는 43%로 긴 머리 역시 머리 폭이 다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머리 높임(Hair Height)

표 3. Hair Height

(단위:%)

| | 1980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mean | SD |
|-------|------|------|------|------|------|------|------|------|------|------|------|------|----|
| short | 40 | 51 | | 44 | | 43 | 43 | 40 | 50 | 35 | 30 | 41 | 21 |
| med | 38 | 43 | | 46 | | 35 | 40 | 42 | 36 | 36 | 33 | 38 | 13 |
| long | 30 | 34 | | 40 | 54 | 33 | 36 | 39 | 37 | 36 | 32 | 37 | 24 |

표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짧은 머리의 머리 높임은 평균 41%로 가장 높았으며 1981년에 51%로 머리 높임이 가장 높았고 1990년에 30%로 머리 높임이 가장 낮았다. 짧은 머리의 머리 높임의 편차는 21%로 머리 스타일에 따라 다양하였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간 머리의 경우 머리 높임의 평균은 38%였고 편차는 13%로 중간 머리의 머리 높임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긴 머리의 경우에는 머리 높임이 평균 37%였고 1980년에 30%로 가장 머리 높임이 낮았고 1984년에 54%로 가장 머리 높임이 높았으며 편차는 24%로 긴 머리의 경우는 머리 높임이 다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1984년에 머리 높임이 54%로 전체 머리 높임 중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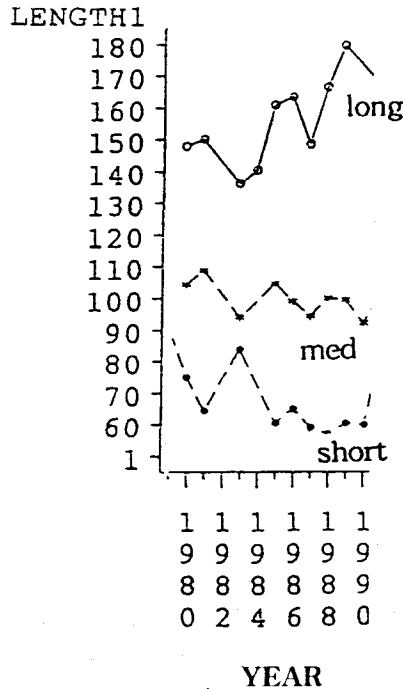
높았던 것을 보아 머리 길이가 짧은 경우에 평균 머리 높임이 가장 컸지만 머리 높임이 가장 높았던 것은 길이가 길었을 경우였던 것을 보아 머리 높임은 머리 길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1980년대의 헤어 스타일의 보편성

1) 머리 길이 (Hair Length)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대의 머리 길이는 짧은 머리, 중간 머리, 긴 머리등으로 다양하게 유행하였으나 10년간의 머리 길이의 변화 양상을 보면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짧은 머리는 80년대 후반이 되면서 점차로 짧아져 갔으며, 긴 머리는 역시 80년대 후반이 되면서 점점 길어져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중간 머리 길이는 큰 차이 없이 계속적으로 비슷한 길이를 유지하는 것을 보아 80년대의 머리 길이는 다양하게 나타났고 각각 특성에 맞게 발전해 갔으며 짧은 머리와 긴 머리의 중간 완화 작용을 위하여 중간 머리 길이는 변화가 많지 않고 비슷한 형태를 지속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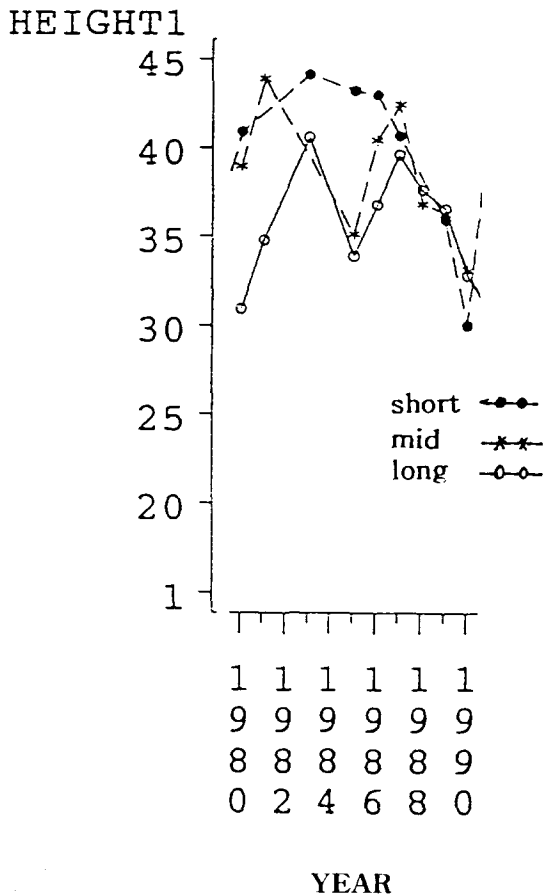
그림 1. Hair Length



2) 머리 폭 (Hair Width)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머리 폭의 변화는 크지 않고 짧은 머리의 경우 중간 머리카나 긴 머리에 비하여 머리 폭이 적은 것으로 보아 머리 폭은 머리 길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머리 폭의 변화 양상을 살펴 보면 80년도 전반부에는 머리 폭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나 중반부에 최고의 폭을 나타냈고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점차로 머리 폭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머리 폭의 변화 양상은 머리 길이의 차이에 관계 없이 같은 경향을 보아고 있는 것으로 보아 80년대의 머리 폭은 스타일에 상관 없이 전체적으로 볼륨이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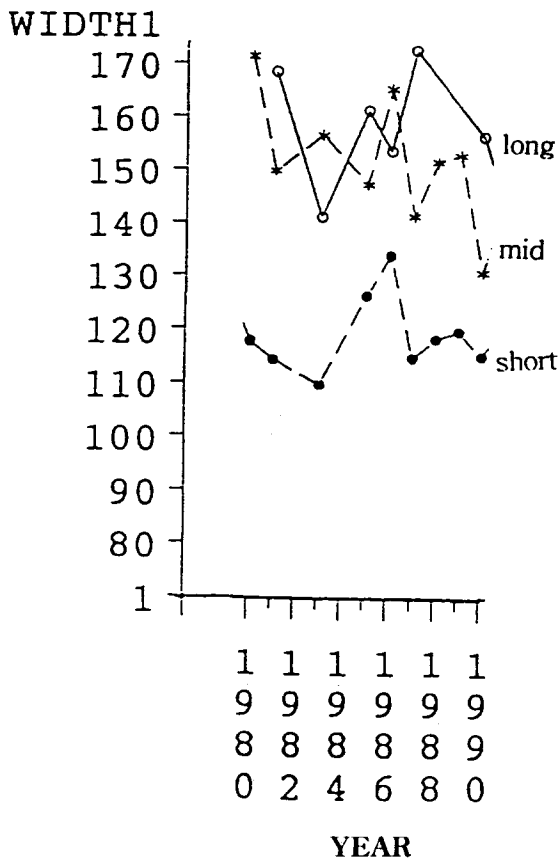
그림 2. Hair Width



3) 머리 높임 (Hair Height)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머리 높임은 머리 길이나 머리 폭에 비하여 변화의 폭이 적으며 머리 길이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머리 높임은 다른 헤어 스타일 구성 항목에 비하여 가장 제한을 많이 받으며 또한 일정한 형태의 규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머리 높임의 변화 양상을 살펴 보면 80년대 전반부에는 대체적으로 머리 높임이 높았으나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머리 높임이 점차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머리 폭의 변화와 비슷한 양상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것은 80년대 전반에는 머리 폭과 머리 높임이 다 같이 컸으며 후반부에는 머리 폭이 줄어들고 머리 높임 역시 낮아졌던 것을 의미한다.

그림 3. Hair Height



VI. 결 론

1980년대는 급격하게 발달하는 과학 문명에 따른 여파가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쳤던 시기였다. 정치적으로는 새로운 양상의 동,서 화합의 장이 열리게 되었으며 경제력의 중요성이 정치, 사회 뿐만 아니라 개인간에도 만연되어 Yuppies 라는 새로운 계층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들은 사회 각 계층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젊은 전문인들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것과 즐기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새로운 풍조로 인하여 패션 뿐만 아니라 헤어 스타일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70년대 이후 나타난 패션의 몰개성화 경향과 때를 같이 하여 헤어 스타일은 더 이상 패션의 부수물이 아닌 독립적인 하나의 장으로 인정 받고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1980년대의 헤어 스타일은 그 이전 시대에 비하여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80년대의 헤어 스타일을 한 가지 스타일로 나타낼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헤어 스타일을 구분하기에 가장 쉬운 머리 길이에 의하여 짧은 머리, 중간 머리, 긴 머리등 3가지로 분류를 한 뒤, 각각의 길이의 분류에 따라 다시 헤어 스타일을 구성하는 항목인 머리 길이(HL), 머리 폭(HW), 머리 높임(HH) 등을 조사하여 각각의 스타일의 다양함을 알아 보았다. 그 결과 짧은 머리 길이는 대체로 귀정도의 길이였으며 그 길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 짧은 머리는 다양한 길이였으며 중간 길이는 큰 차이가 없는 턱선 길이 정도였고, 긴 머리는 어깨 길이 이상이며 다양한 길이의 스타일이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짧은 머리의 경우보다 중간 머리나 긴 머리의 경우에 머리 폭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나 중간 머리와 긴 머리의 머리 폭은 스타일에 따라 다양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머리 높임은 다른 헤어 스타일 구성 항목들에 비하여 변화가 적었으며 머리 길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머리 높임의 변화는 제한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1980년대의 헤어 스타일은 머리 길이, 머리폭, 머리높임 등에서 다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헤어 스타일의 다양함 속에서도 변화의 보편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즉 머리 길이는 짧은 머리는 더욱 짧아져 가고, 긴 머리는 더욱 길어지는 경향으로 나타나, 다양한 머리 길이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특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머리 폭은 짧은 머리 보다는 중간 머리나 긴 머리가 더욱 컸으며 머리 폭이 클 때는 머리 높임도 높고, 머리 폭이 적을 때는 머리 높임도 낮았던 것으로 나타나 머리 길이가 길 경우에 머리 폭도 크고 머리 높임도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었고, 이것은 머리 길이, 머리 폭, 머리 높임은 서로 정적인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헤어 스타일은 더 이상 패션의 일부가 아니고 개별적

인 분야로 독립되 가고 있으며 헤어 스타일 변화는 스타일을 구성하는 항목간의 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아 헤어 스타일 역시 디자인의 원칙에 의하여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헤어 스타일은 이러한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 등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으므로 헤어 스타일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내적, 외적 요인을 함께 연구하여야 하며 헤어 스타일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단편적인 연구 뿐만 아니라 긴 시간동안 헤어 스타일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연구 시기를 확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1. 박기성, 문화커뮤니케이션과 대중문화, 평민사, 378 (1984)
2. 백영자, 유호순 공저, 서양 복식 문화사, 경춘사, 382 (1991)
3. 이선해, 패션 머천다이징, 수학사, 444 (1991)
4. 이은영, 복식 의장학, 교문사, 387 (1983)
5. 이정남외, 복식의 역사, 까치 문화사, 400 (1990)
6. 유송옥, 복식 의장학, 수학사, 372 (1989)
7. 유수경, 한국 여성 양장 변천사, 일지사, 390 (1991)
8. 장문호, 복식 미학, 장학사, 382 (1990)
9. 장지혜, 복장 원론, 경춘사, 356 (1987)
10. 정근식외, 사회 변동의 이론과 전망, 한울 아카데미, 468 (1991)
11. 정홍숙, 복식 문화사, 교문사, 360 (1990)
12. 차하정, 서양사 총론, 탐구당, 680 (1994)
13. 한상복외, 문화 인류학 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487 (1994)
14. 박길순, 정현숙역, 엘리자베스 B 헐록, 복식의 심리학, 경춘사, 390 (1990)
15. 이대인 역, 데이비드 A 라우어, 조형의 원리, 미진사, 309 (1984)
16. 이화연, 민동원, 손미영 역, 마릴린 혼 & 루이스 구렐, 의복: 제2의 피부, 까치, 552 (1991)
17. 김 동현, "1920년대와 1960년대 구미 여자 복식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89 (1983)
18. 김희숙, "20세기 서구 여성 헤어 스타일 변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92 (1993)

19. 도주연, "Hairstyle 변화에 의한 얼굴이미지와 형태의 비교 고찰, Computer Graphic Simulation을 이용하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94 (1991)
20. 박길순, "한국 현대 복식의 발달에 미친 요인 분석",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382 (1992)
21. 유연실, "의복 유행과 형태적 변화와 시차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87 (1981)
22. 정성지, "1, 2차 세계 대전 전후의 복식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99 (1984)
23. 황의선, "근세 서양복장의 두식과 장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5 (1985)
24. 김민자의 4인, "한국 복식 변천과 사회 변천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 의류학회지, vol 17, No. 2, 120 (1993)
25. 남윤숙, "Skirt 길이의 변화에 관한 연구, 1955년-1986년을 중심으로", 복식, 제11호, 124 (1991)
26. 조규화, "1920년대 갈손느의 출현과 그 복식", 한국 의류학회지, 제 8권, 제 3호, 145 (1984)
27. Amy de la Haye, *Fashion Source Book*; (London: Macdonald & Co Ltd), 420 (1988)
28. Behling, Dorothy, *Fashion Change and Demographics : A Model. CTRJ*, 4, 200 (1985-1986)
29. Belleau, Bonnie. D, *Cyclical Fashion Movement: Women's Day Dress:1860-1980, CTRJ*, 5, 204 (1984)
30. Bruno du Roselle, *La Mode*; (Paris: Imprimerie Nationale), 360(1980)
31. Carolyn G. Bradley, *Western World Costume Practice*; (N.J: Hall Inc), 280 (1954)
32. Creekmore, Anna. M, *Body Proportion of Fashion Illustrations, 1840-1940, Compared with Greek Ideal of Female Beauty.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7, 420(1979)
33. *Cutting The Vidal Sassoon Way*; (London: Heinemann Professional Publishing), 380 (1984)
34. Elizabeth Ewing,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London: Batsford Book), 320 (1992)
35. Gerald Battle- Welch Cantz, *Vidal Sassoon Bauhaus*; (Bonn: Werner Moller), 450 (1992)
36. *Hats in Vogue*; (N.Y: abberille Press), 69 (1981)
37. James, Laver, *Costume & Fashion*; (London: Thames and Hudson.),

- 180 (1986)
38. Kroeber, A. L, *The Nature of Culture* ; The Uni. of Chicago, 340 (1919)
 39. Kroeber, A. L, Order in Changes of Fashion. *American Anthropologist*; **21**, 420 (1919)
 40. Michael R, Solomon, *The Psychology of Fashion*; (Toronto: Lexington Books), 380 (1986)
 41. Paoletti, Jo. B. *Content Analysis : It's Application to the Study of the History of Costume, CTRJ*, **1**, 170 (1982)
 42. Lowe, Elizabeth. D. & Lowe, John, W. *Cultural Pattern and Process : A Study of Stylistic Change in Women's Dress. American Anthropologist*, 580 (1982)
 43. R. Turner Wilcox, *The Mode in Costume*, 320 (1958)
 44. Richard Corson. *Fashion in Hair*; (London: Peterowen), 680 (1991)
 45. Richards, Lynne. *The Rise and Fall of It All: The Hemlines and Hiplines of the 1920s. CTRJ*, **2**, 270 (1983-1984)
 46. Richardson, Jane & Kroeber, A.L. *Three Century of Women's Dress Fashion : A Quantitative Analysis. Fashion Marketing*; (London: George Allen & Unwind Ltd), 380 (1973)
 47. Troxell Stone, *Fashion Merchandising*; (N.Y: McGraw-Hill Book Company), 390 (1981)
 48. Valerie Steele, *Woman of Fashion*; (N.Y: Rizzoli), 280 (1991)
 49. Vidal Sassoon *Art. Coiffure et Liberte*; (Paris: Preface de Mitterand), 290 (1992)
 50. Weeden, Patricia. *Study Patterned on Kroeber's Investigation of Style, Dress*, **3**, 290 (1977)
 51. Young, Agnes. Brook. *Recurring Cycles of Fashion, Fashion Marketing*, (London: George Allen& Unwind Ltd), 200 (1973)
 52. Elizabeth Lowe & John Lowe, *Velocity of the Fashion Pross in Women's Formal Evening Dress, 1789- 1980, CTRJ*, **9**, 290 (1990)

Analysis of the Western Women's Hair style in 1980s

Lee, Ju-yeon
Dep. of Skin Care
Parttime lecturer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gure out the variation and integration of hair style in 1980's. The culture reflects the social situations and 1980's is developed very rapidly, thus the social situation affected the 80's fashion.

In the 80's, the new group who is called "Yuppies" were showed up. they were young unmarried professionals and they were characterized very rich and enjoy life. These mood was extended to general society. Under this circumstances, hair style was developed as a independent part of fashion. The hair style of 80's was various in the length. So we sort the hair style into 3 groups which are short, medium, long length, and study the length, width, height of hair style for the each of the lengt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

1. The length of short hair of 80's is ear-length, the length of medium hair of 80's is chin-length, the length of long hair of 80's is under the shoulder-length.
2. The hair width of short hair is narrower than medium hair, long hair.
3. The hair height is not different from each of the hair length.

As it's told, the hair style is various in the length and hair width, height is differenciated upon the hair length. Although the hair style of 80's is various, there is similarity in the hair style. That is positive relation between hair length, hair width, hair height. It means that long hair is wider and higher than short hair.